

中東産油國의 輸出用 精油施設기동과 전망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금년부터 中東산유국들이 대규모 정유시설의 완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石油製品수출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 2 차 石油波動 이후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世界精油産業, 특히 유럽과 동아시아의 精油業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世界精油産業은 2 차 石油波動 이후 석유제품에 대한 대폭적인 수요감퇴와 이로 인한 공급과잉이 累積되어 극심한 불황을 겪어 오다가 지난 해부터 다소 回復勢를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精油産業의 회복은 景氣回復에 따른 수요증대나 공급과잉의 해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雇傭감축, 생산시설삭감 등 경영합리화에 힘입은 것으로서 世界精油産業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막대한 石油資源을 배경으로 한 中東산유국들의 정유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아직도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世界精油業界의 어려움을 더욱 加重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국의 기업과 정부는 그동안 不況期 生存戰略, 自國産業保護政策 등 불황대책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石油製品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가 발생하지 않는 한 稼働率저하, 雇傭감축 및 일부 落後企業의 倒産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단기간내에 世界精油業界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급과잉이 다소 해소되고 수요증가도 예상되는 87년 이후에야

世界精油産業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表-1〉自由世界 1次에너지 需要推移 및 展望
(單位: 石油換算 百萬B/D)

	1982	1990	1995	2000
石油	43.8(47.4)	48.7(43.2)	52.1(40.8)	52.0(37.9)
天然가스	17.4(18.8)	21.2(18.8)	24.3(19.0)	25.2(18.4)
石炭	20.0(22.0)	24.9(22.1)	32.0(15.1)	33.2(24.3)
原子力	3.7(4.2)	73.3(6.5)	9.7(7.6)	11.8(8.6)
水力·其他	7.4(8.0)	10.6(9.4)	9.6(7.5)	14.8(10.8)
計	92.3(100)	112.7(100)	7.7(100)	137.2(100)

註: 1) ()内는 構成比(%)임.

〈資料〉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Opec and the World Refining Crisis, May 1984.

선진각국의 에너지節約進展과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석유제품수요의 급격한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中東産油國들이 건설해 온 대규모 石油精製施設이 금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世界石油製品의 공급과잉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中東산유국들은 原油수출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石油製品을 수출하여 石油收入을 늘리는 동시에 世界石油製品市場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原油가격도 안정시킨다는 의도로 지난 몇 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정유시설에 투자하여 왔다. 이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들 수 있다.

사우디는 內需用 精油工場과는 별도로 輸出用 대형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해 온 결과 오는 7월 안부에 정제능력 하루 25만 배럴의 정유공장이 가동된 것을 비롯, 85년 초에는 주베일에, 86년 초에는 라비그에 각각 하루 25만 배럴, 32만 5천 배럴의 精油工場이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쿠웨이트도 86년에 가동할 예정으로 미나 압둘라에 하루 19만 배럴 규모의 精油工場을 건설중인 것을 비롯, 86년까지는 하루 20만 5천 배럴 규모의 정유시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라크와 카타르는 각각 精製能力 하루 24만 배럴, 5만 배럴 규모의 精油工場建設을 계획하고 있어, 오는 87년까지 中東산유국들의 石油 정제능력은 지난 82년의 하루 218만 5천 배럴¹⁾에서 최소 402만 배럴¹⁾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表-2) 참조.

〈表-2〉 OPEC의 精油能力 전망
(單位: 千B/D)

	現精油能力 (1982/83)	建設中인 精油施設	最 小 精油能力 (1987)	計劃中인 精油施設	最 大 精油能力 (1990)
이 란	545	-	545	500	1,045
이 라 크	170	240	410	-	410
쿠 웨 이 트	550	205	755	-	755
카 타 르	10	50	60	-	60
사우디아라비아	700	1,295	1,995	-	1,995
U A E	130	45	175	185	360
中立地帶	80	-	80	-	80
페르시아灣岸計	2,185	1,835	4,020	685	4,705
에 과 도 르	85	-	85	80	165
베네수엘라	1,360	-	1,360	-	1,360
가 봉	20	-	20	-	20
리 비 아	130	220	350	10	360
알 제 리	435	-	435	-	435
나 이 지 리 아	260	-	260	-	260
인 도 네 시 아	460	445	905	305	1,210
O P E C 計	4,935	2,500	7,435	1,080	8,515

〈資料〉 〈表-1〉과 같음.

이처럼 산유국들이 대거 石油精製部門에 진출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모처럼 회복되고 있는 世界精油産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79년 2

註: 1) 中東産油國中 바레인과 오만은 제외된 수치임.

차 石油波動 이후 石油製品價格이 급등하여 수요가 크게 감소한 반면, 공급은 지난 73~80년에 무려 25%나 증가함으로써 世界精油産業은 엄청난 공급과잉에 직면, 극심한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美國의 경우, 최대회사인 텍사코와 걸프는 정제능력이 하루 1만배럴 이하인 소규모 精油工場의 50% 이상을 폐쇄시키는 등 지난 80년말부터 82년말까지 78개소의 공장에서 하루 230만 배럴의 정유시설을 폐쇄시켰다. 유럽의 주요 6國²⁾들도 지난 80~82년간에 걸쳐 23개소 정유공장의 전면 폐쇄와 아울러 부분 폐쇄 19개소 등 도합 하루 340만 배럴의 정유시설을 폐쇄시킨 바 있다.

이처럼 극심한 不況을 겪은 世界石油産業은 지난해부터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美國의 경우 5대 石油会社³⁾들의 수익은 지난 해보다 15% 증가한 103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금년 1/4분기 중에도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日本의 경우 83會計年度(83. 4. 1~84. 3. 31)中 石油製品販売는 전년도보다 4% 증가한 하루 3,270만배럴에 달함으로써 5년만에 처음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이러한 石油産業의 회복세는 景氣回復에 따른 수요증대에도 다소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주로 그동안 기업들이 꾸준히 추진해 온 雇傭감축, 시설삭감 등 경영합리화에 힘입은 것이어서 石油製品의 공급과잉현상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우기 금년부터 中東産油國들의 수출용 정유공장들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世界精油産業의 공급과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모처럼의 회복세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中東산유국들이 풍부한 資金과 自國의 무진장한 石油原料를 바탕으로 석유제품수출에 나설 경우, 특히 유럽과 아시아지역의 정유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美洲地域은 中東과 거리가 멀어 수송비용이 많

註: 2) 英國, 西獨,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임.

註: 3) 엑슨(Exxon), 걸프(Gulf), 모빌(Mobil), 소칼(Socal: Standard Oil of California), 텍사코(Texaco) 등임.

〈表-3〉 OPEC 및 GCC 国家的 石油製品 輸出展望 (1987/88)

(單位: 千B/D)

	石油製品生産	國內需要	輸出可能量
바 레 인	225	16	209
쿠 웨 이 트	690	95	595
오 만	45	29	20
카 타 르	55	16	41
사우디아라비아	1,655	614	1,040
U A E	160	125	35
G C C 計	2,830	895	1,940
이 란	975	740	0-235
이 라 크	385	430	0
小 計	1,360	1,170	0-235
알 제 리	390	130	260
에 콰 도 르	75	127	-
가 봉	15	44	-
인도네시아	810	550	260
리비아	315	146	170
나이지리아	230	221	9
베네수엘라	1,220	420	800
小 計	3,055	1,638	1,490
O P E C 計	6,975	3,660	3,200-3,435
總 計	7,245	3,703	3,430-3,665

註: 1) 이란·이라크戰爭으로 불확실.

〈資料〉〈表-1〉과 같음.

이 들며, 技術隔差가 현격하므로 中東산유국들이 침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유럽지역은 美洲지역 다음으로 정제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나, 中東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EC內 정부간 政策不調和, 勞組의 간섭 등으로 인해 고용 및 시설감축 등 經營合理化를 적극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中東산유국들이 침투하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시아, 특히 東南아시아의 경우 新興工業国이 많아 장차 石油製品에 대한 수요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나, 原油공급의 확보가 불확실하며, 各國의 精油生産構造가 단순하여 수요 구조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中東산유국들의 좋은 수출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世界精油産業을 둘러싼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歐美 各國의 기업들은 그 동안 추진해 온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다양한 生存戰略을 계속

〈表-4〉 OECD의 石油製品需要 推移 및 展望

(單位: 百萬B/D)

	1982	1985	1990	1995
美 國	15.4	15.5	16.4	17.0
輕質油種	6.8	6.8	7.0	7.0
中質油種	3.8	4.0	4.3	4.7
重質油種	1.7	1.8	1.9	2.0
其 他	3.1	3.1	3.2	3.3
西 欧 諸 國	12.5	13.0	14.0	14.6
輕質油種	3.1	3.4	3.5	3.6
中質油種	4.6	4.8	5.5	6.0
重質油種	3.0	2.8	3.0	3.0
其 他	1.8	2.0	2.0	2.0
日 本	4.3	4.3	4.6	4.9
輕質油種	1.0	1.0	1.1	1.2
中質油種	1.2	1.2	1.4	1.6
重質油種	1.4	1.2	1.1	1.1
其 他	0.7	0.9	1.0	1.0
其他OECD	2.4	2.8	2.5	2.5
OECD 計	34.6	35.6	37.5	39.0

註: 1) 輕質油種은 나프타, 휘발유 등임.

中質油種은 제트유, 가스, 디젤유 등임.

重質油種은 B-C油등 연료유.

기타는 LPG, 코우크, 솔벤트, 윤활유, 왁스 등임.

〈資料〉〈表-1〉과 같음.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世界石油業界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정유공장의 폐쇄 등 과잉정유시설의 폐기, ② 제품수요의 中·輕質化에 대처하기 위한 설비구조의 고도화, ③ 流通費用節減을 목적으로 하는 注油所數의 삭감, ④ 인원감축 및 판매지역의 집중화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生存戰略으로서 대형石油會社間 買收·합병을 들 수 있다. 美國의 경우 텍사코가 게티오일을 買收한 데 이어 소칼은 걸프를 인수하였으며, 모빌은 슈페리어 오일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의 경우도 大協石油와 丸善石油의 합병에 이어 昭和石油와 셀石油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등 買收·합병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밖에 걸프, 소칼 등은 정유부문에서 손을 떼고 石油製品의 수송 및 판매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 분야로 많은 기업이 몰리면 여기에서도 收益性

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국 정부들도 自国石油産業의 보호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對應策을 마련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 83년부터 5年 時限으로 特定産業構造改編臨時措置法을 마련, 노후한 생산시설의 폐기, 石油化學工業의 과당경쟁방지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歐美의 경우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를 통해 기업의 자주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촉진시키는 한편 石油會社의 利潤確保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유렵主要國들은 산유국의 진출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정책적으로 산유국의 自国内石油下流部門 진출을 허용, 自国經濟圈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世界精油産業은 적어도 향후 2~3년간은 가동률저하, 과잉시설삭감, 고용감축 또는 後進業體의 파산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87년 이후에야 經營狀態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근거로는 ① 87년 이후에 世界景氣回復에 따라 石油製品의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② 그동안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이 탈락함으로써 공급과잉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③ 中東산유국들의 石油製品輸出이 自国内 수요증가로 인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87년 이후 90년대 초까지, 혹은 90년대 중반까지는 産油国이나 非産油国이 수출용 정유시설을 증설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오는 87년 이후 경쟁에 살아남은 기업은 수

〈表-5〉 EC 주요국의 精油施設 削減推移 및 展望

(單位: 千B/D)

	79年 末 精油施設	80~82年中 削減된施設	83~85年中 削減될施設	85年 末 精油施設	削減率(%)
英國	2,662	394	284	1,984	25.4
西獨	3,038	518	142	2,378	21.7
프랑스	3,352	554	0	2,798	16.5
이탈리아	3,968	562	94	3,312	16.5
벨기에	1,080	176	186	718	33.5
네덜란드	1,796	246	296	1,254	30.2
計	15,896	2,450	1,002	12,444	21.7

〈資料〉 日本工業新聞社, エネルギー, 1983. 11.

급이 안정된 시장에서 適正利潤을 享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유국들의 石油下流部門진출은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산유국들이 石油製品의 대량수출에 나설 경우 공급과잉은 더욱 심화되어 石油製品가격을 하락시키고, 이는 다시 油價의 하락으로 이어져 산유국들이 오히려 불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中東산유국들이 世界石油製品市場에서의 위치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油價를 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石油輸入先의 다변화를 통해 石油의 對中東依存度を 줄여 나가는 한편 시설의 개선,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石油製品單位當 생산비용을 절감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각없는 외제선호

부리썩는 경제질서